

현대 스트리트 패션 분석 및 선호도 연구

-강남권과 · 강북권의 비교 분석-

이 영 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The Analysis and Preference of Contemporary Street Fashion -Comparative Analysis of Kangnam and Kangbuk -

Young-Jae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Textile & Fashion, Hanyang University*
(2002. 10. 30 투고)

ABSTRACT

In this study, the modern street fashion of Kangnam and Kangbuk was qualitatively examin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rough the field case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be importantly used in planning commodity of fashion brand.

The photographs taken in the Kangnam and Kangbuk streets were classified as looks, which were comparatively analyzed each other. Also, a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in return for women in those streets, and data related with an age group, occupation, school, academic major, etc. for participant personality and with time purchasing clothing, average expenses for clothing per month, market and reasons for buying clothing, current fashion style, etc. for fashion preference trend were obtained. The streets around Kangnam subway station and KOEX mall for the Kangnam fashion style were selected for the sampling, and Sinchon and entrance of Ewha University for the Kangbuk, where college students and middle/high school students mostly gather.

Results showed that an easy casual style was most popular in the Kangbuk area, and a romantic feminine style including a bobos style most popular in the Kangnam area. This case studied on the street fashion gave the qualitative results about the fashion trend and fashion prediction information, and they could be compared with quantitative those known previously. Also, it could be a basis research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fashion commodity. However, this study was subjected to restriction in the sampling due to the short time and a few streets. This study will be extended into longer time and various streets including Apgujungdong in Kangnam and many colleges in Kangbuk.

Key Words: Street fashion(거리 패션), Style(스타일), Look(룩), Preference(선호도)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패션의 캐주얼화는 소비자 생활 수준의 향상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증가, 편안함의 추구, 직장내의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활동적인 의복 분위기 선호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국내 패션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캐주얼웨어 시장이 5조 1천 800억으로 1위를 차지하고¹⁾, 소비 구매성향 중에서 10, 20대의 의복비 지출 순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²⁾ 10, 20대를 타겟으로 한 캐주얼 브랜드가 패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³⁾

현대 스트리트 패션은 청소년 하위문화가 패션에 도입되어 보편화된 것으로 그중 캐주얼 웨어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 2002 S/S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보보스 스타일은 'Bohemian-Bourgeois'에서 따온 말로 1960년대 스트리트 패션 중 히피 스타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경의 네오 히피와는 달리 과거 히피족의 거친 느낌을 버리고, 고급스러운 로맨틱 스타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 스트리트 패션은 중요도와 큰 시장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디자인 needs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위문화 현상으로서 스트리트 스타일을 연구하였거나⁵⁾, 소위된 집단의 특수문화에서 현대 패션으로 발전된 과정을 연구하였고⁶⁾, 현대 패션에 도입된 현상으로서 연구하였으며⁷⁾, 미적 특성을 추출해낸 연구⁹⁾와 스트리트 패션의 패션단서 분석과 해체주의 경향 분석을 통한 트렌드 연구¹⁰⁾ 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 연령층인 10대, 20대를 위한 스트리트 패션의 상품 기획 시 고려함으로써 구매행위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호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집단은 거대한 캐주얼웨어

착용집단이면서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개개인의 개성을 가장 구별하기 힘든 복잡한 감성을 표출하고 있는 집단이다. 전체적으로 easy casual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패션의 유행에 민감한 집단으로 중·고생들과 no-age를 표방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가시적인 시장 규모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다.

한편, 패션 정보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2년 국내 캐주얼웨어 시장의 전망은 힙합 캐주얼, 진 캐주얼, 감성 캐주얼, 스포츠 캐주얼 등 브랜드 다각화 전략에 의해 이지 캐주얼 시장 편중 현상이 다소 해소되고 다양한 감성 캐주얼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¹⁾ 즉,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의 부상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스트리트 패션의 사례 조사 연구가 패션산업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스트리트 패션의 현장 사례 연구는 앞서 언급된 패션 트렌드나, 각종 패션 예측 정보와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패션 소비 문화가 강남과 강북을 중심으로 대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그에 따른 비교 분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에 따른 패션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패션 트렌드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빠른 변화 속의 스트리트 패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패션 상품 기획 시와 후속학문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소비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스트리트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유행 경향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남권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강남역 일대와 코엑스몰 주변을 현장 조사하였으며, 강

북권은 대학생들과 중고생들이 쇼핑과 놀이문화를 위해 즐겨 찾는 신촌·이화여대 입구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하였다. 현장 조사시 수동 카메라와 자동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재 유행에 따른 스타일, 감각 있게 입은 스타일, 조사 당시 빈도 수가 많았던 스타일을 중심으로 스트리트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전신을 촬영하였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강남권은 179컷의 사진과 194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강북권은 220컷의 사진과 207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사 내용 중에 의복 쇼핑성향과 여가 활용 현황을 첨부하여 생활 문화 속의 패션 선호 경향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강남역 일대와 코엑스몰 주변은 2002년 5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7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6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5시이며, 신촌·이화여대 입구는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7시, 2002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7시에 각 각 실시되었다.

2)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스트리트 현장 조사를 통한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 분석 및 패션 선호도 분석이다.

먼저,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 분석은 스트리트 현장조사시에 촬영한 전신 사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은 육안을 통한 관능 검사로 실시하였다. 사진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5인의 대학 교수 및 강사의 검토를 거쳐 3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진분석에 대한 기준은 패션 코디네이트 책¹²⁾을 참고로 록과 스타일에 대한 분류기준을 잡았는데 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후 현재 패션 용어에 맞게 수정하여 캐주얼 웨어와 오피셜 웨어인 정장 스타일로 나누었다. 캐주얼은 다시 이지 캐주얼과 진즈 캐주얼로 나누었고, 정장 스타일은 보보스 스타일로 명명하였다. 이때, 캐주얼웨어와 구분하기 모호한 스타일들도 있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5인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 시 3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패션 선호도 분석이다. 설문지를 스트리트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조사대상의 연령층, 조사대상의 직업,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고등학교의 특성(인문/예술/상업), 대학생일 경우 전공의 분포,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의 구입시기, 한달 평균 의복 구입비, 의복을 구입하는 장소,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의 구입 이유,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을 어떤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유행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는가, 주말과 여가생활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각 각 질문하였다. 분석 방법은 백분율로 처리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과 변화 추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스트리트 스타일은 주로 영국과 미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하게 된다.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지는 런던의 킹스로드(King's Road)와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 뉴욕의 할렘(Harlem),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이다. 스트리트 스타일은 상류층이나 기성세대들에 의해 주도되는 패션이 아닌,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과 소외된 계층에 의해서 생성된 스타일로 1940년대 주티(Zootie), 힙스터(Hipsters),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 캐리비안 스타일(Caribbean Style)의 등장을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기로 본다. 이들은 지하클럽에서 감각적인 아메리카 음악들과 재즈를 연주하며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1940년대는 경제 대공황 이후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한 대량생산 체제를 강조하게 되어 소비자 중심의 자본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Schoeffler와 Gale¹³⁾은 주티를 20세기의 하위문화에서 시작된 최초의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WPB(War Production Board, 전시물자 관리 위원회)가 이를 금지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우한

계층 청년들의 반항으로 보았다.¹⁴⁾ Mick Farren¹⁵⁾은 'The Black Leather Jacket'에서 힙스터(Hipster)는 획일적인 인생 스타일에 대한 거부이며, 비밥퍼(Bebopper)뿐만 아니라 바이커(Biker)와 비트족(Beats)과 같이 1940 후반에서 1950년대의 하위문화였다고 하였다. 록큰롤 스타 Elvis Presley는 격렬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검정색 가죽 수트를 착용하였는데, 당시 록 스타이자 시인인 Doors의 Jim Morrison도 이와 같은 힙 모드(Hip mode)를 따르고 있었다고 한다.¹⁶⁾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중 매체와 교통 수단의 발달 및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중산층이 형성된다. 또한 독자적 가치관을 지닌 소수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대중 소비자 속에 편입됨으로써 기성 문화와는 다른 청소년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문화, 인종적으로 그들만의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의 인권 신장과 인종 차별에 대한 반항심이 사회 저항 운동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만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등장하게 된다. 1960년대 말 등장하는 히피의 전조였던¹⁷⁾ 비트족(Beats)과, 테디보이, 모더니스트 등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트리트 스타일은 영패션의 대두와 캐주얼 패션의 강세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 세계적인 정세는 전후 냉전체제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표현이 대중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은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주문화에 대항하는 히피와 같은 반문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스트리트 스타일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히피는 반사회적 반문화적 체제로서 개인과 집단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였다. 히피들과 록 뮤직은 학생 반문화 운동으로 1960년대 반 베트남전의 교내 폭동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¹⁸⁾ 대중매체가 히피를 다루면서 비판의 여론과 함께 시각적으로 히피의 자유로운 외모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유행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¹⁹⁾ 영국의 히피들은 도시의 부랑

자들로 남아빠진 의상, 수공예품 그리고 군수용품의 활용으로 그 스타일을 형성하였는데 비해 미국 히피들은 생활 방식이나 풍습에 있어 자연 회귀를 주장하였다.²⁰⁾

1960년대의 또 다른 스트리트 스타일로 모즈(Mods)가 있으며 모즈를 일컫는 또 다른 말로는 Mids, Mockers, Moddy Boys 등이 있다.²¹⁾ 모즈 스타일은 1950년대 후반 재즈 스타일인 모더니스트로 시작되었으며, 비비드 칼라(vivid colour)의 셔츠와 짧은 길이의 어깨가 넓고 슬림한 재킷, 폭이 좁은 넥타이, 주름없고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액티브한 스타일로는 폴로 셔츠, 터틀넥의 카디건, 스트라이프 재킷을 입었다.²²⁾

1970년대에 가장 부각된 스트리트 스타일은 영국 중심의 핑크 스타일이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발전에 따른 낙관론과 세계적인 오일 쇼크(Oil Shock)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비판론이 공존하였다. 이제까지의 소비가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로, 대량생산 체계가 개별적 개성을 중시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 퇴폐적인 성해방, 독특한 핑크의 등장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의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Women's Wear Daily*²³⁾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풍부한 패션 마켓으로서 런던을 묘사하였다. 킹스로드를 중심으로 충격적이고 요란스런 몸치장을 한 핑크 청소년들은 질서와 균형을 무시한 예술 파괴주의자들로서 아방가르드 그룹인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열광적으로 확산되었다. 'Punk Rock Music'으로부터 명칭이 유래되었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핑크 록 밴드의 추종자들에 의해 입혀졌다.²⁴⁾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인조 표범 가죽 소재나 플라스틱과 그물로 된 셔츠와 멜빵 바지를 착용하고, 옷핀을 귀나 코, 입에 꿰어 장식하며, 뾰족한 금속징들이 박혀있는 목걸이, 팔찌, 장갑, 벨트와 모하칸족 헤어스타일 등으로 폭력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런 반 자연적이며 저속한 스타일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실직

한 젊은 노동자 계층의 절망감을 대변하고 있다.²⁵⁾

1980년대에는 교통, 정보·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로 미래의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영국 축구가 성공함으로서 노동자 계급인 남성들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팬들이 유럽에 원정 응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스트리트 패션이 대중화 된 것같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도 멋을 내기 시작하였다. 영국 축구 팬들은 영국 축구 선수가 일류라면 당연히 그 팬들도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라코스테, 버버리와 같은 고가 브랜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캐주얼족(Casuals)으로서 개인적인 성공과 부를 나타내었다.²⁶⁾

패션은 개성적인 자기 표현으로 용도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추구되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존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주문화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난 하위문화의 부상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Polhemus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능한 모든 Street Style의 역사가 이용되고 이런 뒤범벅이 된 혼합을 'Street Style 슈퍼마켓'(the supermarket of street style)'으로 설명했다.²⁷⁾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스트리트 스타일들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하이패션에 도입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²⁸⁾ 즉, 스트리트 스타일의 유행이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어 주문문화가 주문화로 급부상하여 전체 패션의 흐름을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 강남 스트리트의 특징

수 백년간 우리 역사와 정치의 중심무대였던 강북의 광화문 네거리가 10여년 사이 예술원, 학술원,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검찰청이 강남의 서초동 일대로 옮겨가면서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신 권력 타운으로 부상하였다. 강남 집중 육성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이 지어지면서 문화예술의 중심도 절반 이상 강남으로 옮겨졌다.

한편, 지하철 강남역 일대가 대형 패션 매장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패션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해 말 SK 글로벌의 아이젠 포스트와 지오다노 코리아의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패션거리 면모가 갖춰진 강남역 일대에 최근 이랜드의 후아유,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티니위니 등이 매장을 열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02년 9월 중순경에는 인테그랄의 여성 SPA(제조소매업) 브랜드인 쿠아가 200평 규모의 대형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었고 종합패션몰인 점프밀라노도 후아유 바로 옆에 2003년 8월 개점을 하고 있어 강남역 인근이 대형 패션브랜드의 격전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상반기 강남역 앞에서 오픈 예정인 점프 밀라노는 패션, 전문 식당가, 게임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테마타운이다. 패션의 불모지였던 강남역 일대가 패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패션업체들이 극장과 유흥업소,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모이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을 공략하고 나선기 때문이다.

또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이 운집해 있는 서울 강남 일대는 소득수준이나 인구면에서 국내 최대의 상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지난해 코엑스몰과 센트럴시티 등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강남 쇼핑몰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 중 쇼핑지도를 바꿀만한 큰 변화는 2001년 5월 개장한 코엑스몰로 46,000평 규모의 동양 최대 지하 쇼핑몰이다. 이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의 18배에 달하고 점포 수에서도 잡화류, 식당 등 220여개로 메머드급 시설을 갖췄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도심공항터널, 현대백화점 등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도심 속의 지하 도시로 불릴 정도이다. 16개의 개봉관을 갖춘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고 코엑스몰에서 쇼핑하는 이들에게 '코몰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3. 강북 스트리트의 특징

강남이 부상하기 전까지 명동과 더불어 멋쟁이들의 산실이었던 이화여대 입구는 구석구석 자리한 의상실들이 가짜 명품들을 부담 없이 살 수 있

는 곳으로 변모했다. 60-80년대를 풍미하였던 의상 실들은 몇 개 안 남아 있고, 90년대 이후 영 캐주얼을 겨냥한 보세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곳을 찾는 연령층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생은 물론 주머니가 가벼운 멋쟁이들이 즐겨 찾는다. 특히 의류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악세서리 상품들이 즐비하며, 미용실과 각종 먹거리 문화가 집합되어 있어 인근의 신촌 지역에 비해 아가자기한 여성 중심의 놀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신촌에는 연세대와 서강대, 홍익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신촌 지하철역 입구에 현대백화점이 있어 이곳의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신촌 지역에는 의류제품 판매 장소보다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놀이 문화공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 소비를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젊은 이들의 놀이 문화공간이라 하겠다. 즉, 패션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인근의 이화여대 입구나 홍익대 주변, 신촌 현대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부상중인 홍익대 입구는 강북의 압구정동으로 불릴 만큼 패션 소비 문화가 집중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4. 2002년 S/S 패션 트렌드

2002년 S/S 패션 트렌드는 로맨틱 히피 스타일로 낭만적인 보헤미안풍과 스포츠 룩에 영향받은 이지 캐주얼로 요약할 수 있다.

2002년 S/S 패션 트렌드 중 여성복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원피스 아이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A라인 원피스와 H라인 원피스 등 클래머스한 여성미를 강조하면서 편안한 느낌까지 준다. 또한,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블라우스의 강세가 눈에 띈다. 블라우스는 이지 캐주얼의 영향과 로맨틱한 보헤미안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한 디자인이 많다. 특히, 단품 아이템을 통한 개성적인 코디네이션이 패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통바지로 불리우는 와이드 팬츠와 랩 스커트 등이 히트 상품으로 예견되고 있다.

남성복은 실용성을 강조한 스타일로 전통적인

댄디 스타일과 복고풍 스포츠 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니섹스 영 캐주얼 쪽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래픽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크리어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월드컵의 영향으로 액티브 스포츠 웨어 디자인과 리조트 웨어가 시티 캐주얼 웨어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남성복에서도 모든 스타일에 로맨틱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복을 포함한 모든 패션 트렌드이다.

디테일은 로맨틱 히피 스타일의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되는 오프 숄더 라인, 개더링 넥의 블라우스, 프릴을 사용한 칼라, 러플로 포인트 장식된 스커트와 소매 햄 라인, 퍼프 소매, 티어드 스커트 등이 있다.

여성복 컬러는 순수하고 낭만적이며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으로 자연주의, 로맨틱, 화이트 파워의 세가지 코드로 설명된다. 자연주의에서는 푸르른 바다 한가운데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내추럴 컬러로 블루, 스카이 블루, 그린, 옐로우 그린, 파스텔 톤 컬러의 여유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로맨틱은 환상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상징한다. 옐로우, 핑크, 인디언 핑크, 브라이트 레드, 오렌지의 낭만적 분위기이다. 화이트 파워는 세계가 꿈꾸는 순수와 평화의 시대로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베이지, 샌드 베이지 등 순한 파스텔톤 컬러를 가미하였다. 남성복 컬러는 화이트를 기본으로 레드, 네이비, 스카이 블루, 블랙을 매치시키는 컬러 콤비네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재는 로맨틱시즘, 에스닉, 스트라이프로 나눌 수 있다. 로맨틱시즘은 페미니티와 로맨틱시즘을 극대화시켜주는 소재로 얇고 포근하고 매끄러운 그리고 하늘거리며 날아갈 듯 가벼운 쉬폰과 섹시한 느낌의 레이스를 중심으로 사용, 한없이 우아하고 엘레강스함을 표현해 낸다. 에스닉은 70년대 히피룩의 유행에 따라 나일론, 폴리, 마, 실크, 면과 좀 더 활동적이고 강렬한 느낌의 데님 등이다. 화려하고 오리엔탈적인 느낌의 패턴을 사용한다. 스트라이프는 그래픽적인 한 패턴이나 두 세 가지 톤

의 기하학적인 스트라이프로 역동성과 발랄함을 표현한다.²⁹⁾

Ⅲ. 연구결과

1. 강남권과 강북권의 스트리트 패션 룩의 비교분석

강남권 남자는 이지 캐주얼이 주종을 이루었고 트레이디셔널한 정장도 캐주얼에 영향을 많이 받은 스타일이었다. 여자는 이지캐주얼과 보보스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략 60:40 이었다. 이에 비해 강북권의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보면 남자는 이지 캐주얼이 강세고 여자는 보보스 스타일과 이지 캐주얼이 약 30:70으로 나타났다. 즉, 강남권과 강북권의 남자들은 이지캐주얼과 진즈 캐주얼이 대부분이었던데 비해 여자들은 캐주얼 웨어와 정장 스타일인 보보스 스타일로 양분되고 강남권의 여자들이 강북권에 비해 30%정도 보보스 스타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권의 패션 소비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강남권의 여자가 강북권의 여자에 비해 캐주얼웨어보다 고가격대의 명품의 정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2002 S/S 패션 트렌드와 스트리트 패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패션 스타일은 개개인이 개성 있는 연출을 하기보다는 유행을 추종하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남과 강북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었는데, 고급스타일인 보보스 스타일과 정장 스타일이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구매시 경제적인 차이, 통계학적인 인구 특성, 패션 상권의 형성과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의 2, 3. 스트리트 특징에서 패션 상권에 대해, III의 2. 선호도 조사에서 구매시 경제적인 차이, 인구 특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래의 사진(<사진 1>~<사진 6>)은 현장 조사시 촬영한 것을 편집한 것으로 룩을 크게 보보스

스타일, 진즈 캐주얼, 이지 캐주얼로 나누어 그루핑하였다. 보보스 스타일은 로맨틱 캐주얼한 단품과 정장을 코디한 룩이 많았으며 로맨틱 히피 스타일이면서 절제된 라인이 사용된 낭만적인 보헤미안 풍도 간혹 접할 수 있었다. 캐주얼을 진즈 캐주얼과 이지 캐주얼로 나눈 것은 진즈 웨어의 강세로 진즈 웨어 그룹의 규모가 크데다가 진즈 웨어 디자인이 다양화되어 원피스, 스커트, 정장에 이르기까



<사진 1> 강남 진즈 캐주얼



<사진 2> 강남 이지 캐주얼



<사진 3> 강남 보보스



<사진 4> 강북 진즈 캐주얼



<사진 5> 강북 이지 캐주얼



<사진 6> 강북 보보스

지 광범위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게되었다. 이지 캐주얼은 전체적으로 유행 경향이 강하게 두드러졌는데 강남권에 비해 강북권이 훨씬 우세하고 강남권은 여자들의 40%와 남자들의 20%정도가 보보스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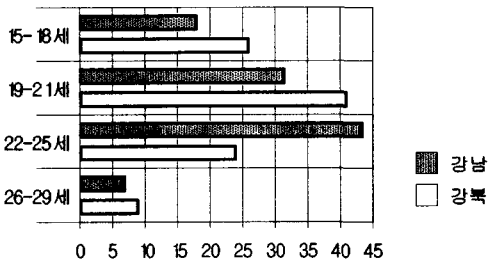
2. 스트리트 패션의 선호도 조사

1) 조사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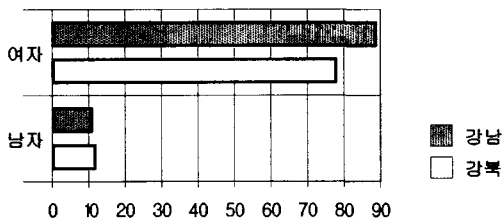
(1) 조사 응답자의 연령층

다음의 <표 1>은 조사 응답자의 연령 분포도이다. 강남권은 조사 응답자중 22-25세가 4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강북권은 19-21세가 41.0%로 가장 많아 강북권이 강남권에 비해 스트리트를 확보하는 연령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권은 19-21세가 31.5%, 15-18세가 18.0%, 26-29세가 7.0%의 순서로 나타났고 강북권은 15-18세가 26.0%, 22-25세가 24%, 26-29세가 9.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조사응답자 연령분포



<표 2> 조사응답자의 성별



(2) 조사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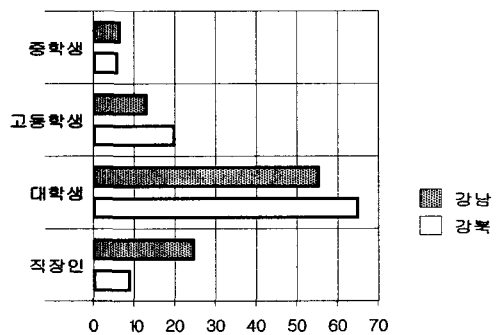
<표 2>는 조사응답자의 성별로 강남권은 남자

의 성별 분포가 11%, 여자의 성별 분포가 89%로 여자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강북권은 남자 22%, 여자가 78%로 강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여자의 패션 소비 현황, 패션 스타일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결과 해석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또한, 강남은 놀이와 소비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에 비해 강북은 대학가인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가 고루게 분포하도록 의도한 조사가 아니라 현재 유행에 따른 스타일, 감각 있게 입은 스타일, 조사 당시 빈도 수가 많았던 스타일을 무작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가 많은 여자들의 패션 스타일이 현장 조사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었던 것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 최근 남성복 디자인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컬러나 디자인라인에서 많이 화려해졌지만 아직도 여자에 비해 눈에 덜 띄는 스타일이 주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조사 응답자의 신분

<표 3>은 조사 응답자의 신분으로 강남권은 전문대생을 포함한 대학생이 55.5%로 강북권의 65%에 비해 적으며 직장인의 비율이 24.7%로 강북권의 9%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분포도 강북권이 20%로 13.2%인 강남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하며 고등학생들이 즐겨찾는 패션이 강남에 비해 강북이 좀 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조사응답자의 신분



(4) 조사응답자의 전공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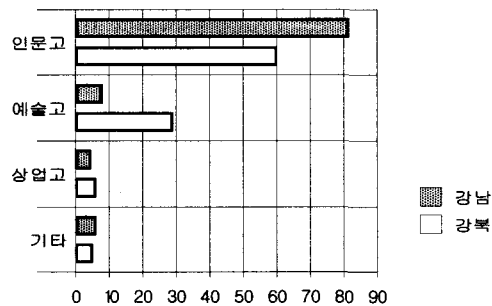
① 고등학생

조사응답자중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물어보았다. <표 4>를 살펴보면 강남권의 고등학생은 인문고가 81.5%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강북권은 인문고가 60%, 예술고가 29%로 인근지역의 고등학교 분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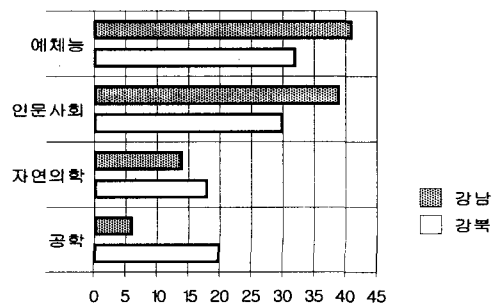
② 대학생

조사응답자중 대학생의 전공영역에 대한 질문에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강남권의 대학생은 예체능계열이 41%, 인문사회계열이 39%로 나타났고, 강북권은 <표 10>에 나타난 것 같이 예체능계열이 32%, 인문사회계열이 30%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이 패션이나 놀이 문화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 고등학생의 전공영역



<표 5> 대학생의 전공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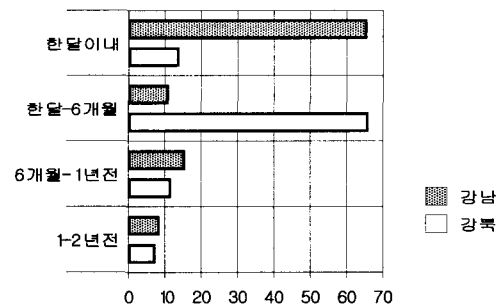


2) 패션소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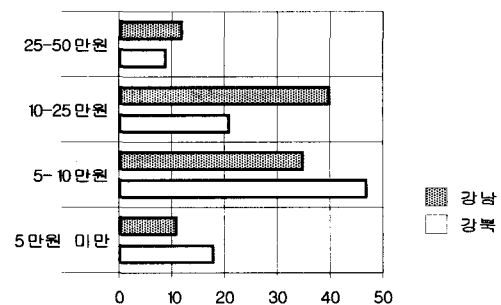
(1) 의복 구입시기

스트리트 현장조사시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구입시기를 묻는 질문에 강남권의 조사 응답자는 65.5%가 한달 이내에 구입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던데 비해 강북의 조사 응답자들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가 6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은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5.5%, 한달에서 6개월 사이가 10.9%, 1년에서 2년 사이가 7.3%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 강북권은 한달에서 6개월 사이가 13.8%,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1.7%, 1년에서 2년 사이가 8.5%로 나타나 강남권의 조사 응답자들이 강북권에 비해 유행 패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류 소비주기도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의복 구입시기



<표 7> 한달 평균 의복 구입비



(2) 한달 평균 의복 구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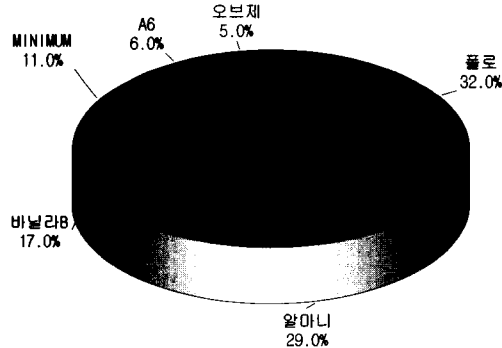
한달 평균 의복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 강남은 10-25만원이 40%로 가장 많았고, 5-10만원이 35%로 그 다음을 나타냈다. 25-50만원이 12%, 5만원 미만이 11%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강북 지역은 5-10만원이 47%로 가장 많았고, 10-25만원이 21%로 그 다음을 나타냈다. 5만원 미만이 18%, 25-50만원이 9%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 강남권의 조사 응답자가 강북권에 비해 의류 소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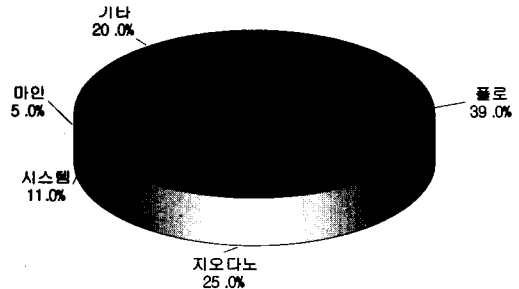
(3) 선호하는 브랜드

의복 구입 시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강남권은 폴로, 알마니, 바닐라B, MINI- MUM, A6, 오브제의 순서로 강북권은 폴로, 지오다노, 시스템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강남과 강북 지역을 비교하면 폴로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고 있어 스포츠 캐주얼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위부터 선호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강북권은 지오다노와 같이 중저가를 선호하는데 비해 강남권은 알마니와 같이 고급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북권은 시스템이나 마인과 같이 디자인 라인이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강남권은 바닐라B, 오브제와 같이 디자인 캐릭터가 뚜렷하고 개성이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강남 선호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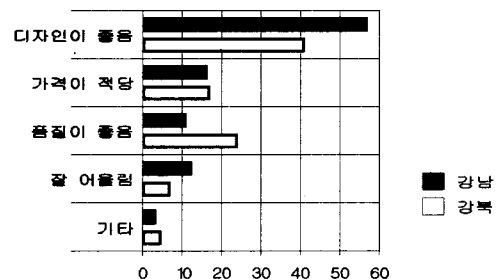
<표 9> 강북 선호 브랜드



(4) 선호 이유

위의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강남권의 조사 응답자들은 '디자인이 좋다.'에 56.9%, '가격대가 적당하다.'에 16.3%,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가 12.4%, '품질이 좋아서'가 11.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강북권의 조사 응답자들은 '디자인이 좋다.'가 41.0%로 가장 많고 '품질이 좋아서'가 24.0%, '가격대가 적당하다'와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17.0%, 7.0%를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에서 디자인이 좋다는 이유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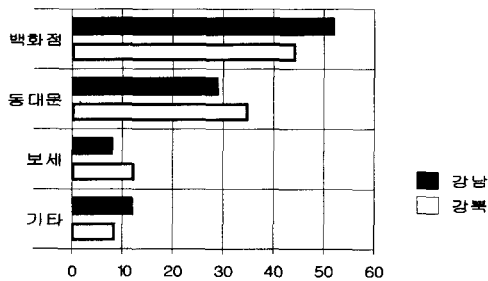


(5) 선호하는 구입 장소

강남권의 쇼핑 선호 장소는 백화점이 52.0%, 동대문 밀레오레가 34.9%, 기타가 12.0%, 보세점이 7.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은 백화점이 44.3%, 동대문 밀레오레가 29.0%, 보세점이 12.3%, 기타가 8.5%의 순서이다. 백화점이 의류 소비의 제 1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구입장소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생과 직

장인은 백화점을 중·고등학생은 동대문 밀레오레를 선호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대문 밀레오레가 백화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 선호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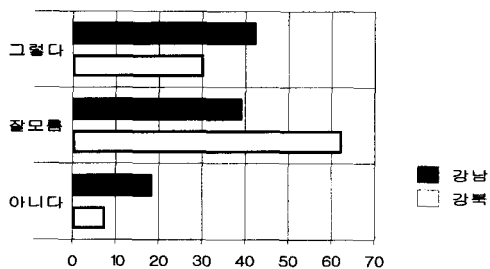


3) 착용 의류의 패션 스타일

(1) 유행 추종 여부

현재 입고 있는 자신의 스타일이 유행 패션인가에 대한 질문에 강남은 '그렇다'가 42.4%, '아니다'가 18.4%, '잘 모르겠다'가 39.2%로 긍정적인 대답이 42.4%, 부정적인 대답이 57.6%로 유행에 관심 없는 그룹이 유행에 관심 있는 그룹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북 지역은 '잘 모르겠다'가 62.3%, '그렇다'가 30.2%, '아니다'가 7.5%로 강남권에 비해 유행에 관심 없는 그룹이 69.8%로 12%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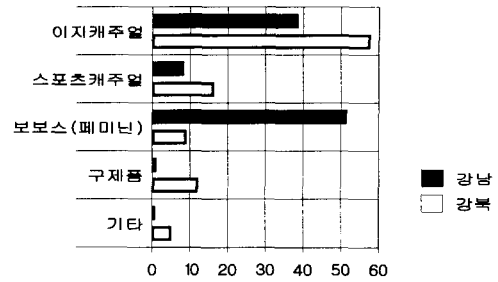
<표 12> 유행 추종



즉,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유행에 따른 스타일,

감각있게 입은 스타일, 조사 당시 빈도수가 많았던 스타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다면 의외의 결과이다.

<표 13> 착용 스타일



유행스타일을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어도 유행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그룹이 유행을 추종하는 그룹에 비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패션 정보업체에서 트렌드 예측을 내놓고 실제로 현장조사로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 이유인 트렌드는 곧 유행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패션 스타일

현재 입고 있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강남권은 페미닌(보보스) 스타일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지 캐주얼이 38.5%, 스포츠 캐주얼이 8.3%, 구제품 패션이 1.0%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비해 강북권은 이지캐주얼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캐주얼과 구제품 패션이 각각 16.2%, 11.1%를 나타내고 있으며 페미닌(보보스) 스타일 9.0%, 기타 5%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강남권과 강북권의 패션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권은 여성스런 페미닌 스타일과 명품의 보보스 스타일이 강북권에 비해 우세하고 강북권은 캐주얼 스타일과 구제품 패션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79%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여성의 보보스 스타일이 지극히 낭만적인 페미닌 스타일인 것을 조사 대상자들이 혼동할까 우려되어 페미닌(보보스)으로 묶어 질문하였다. 그러므로 강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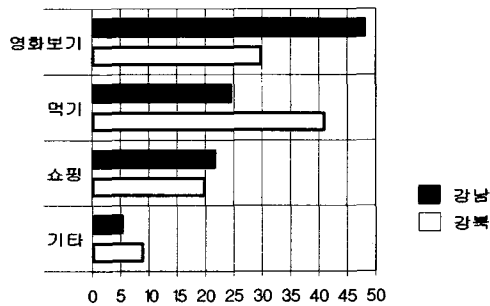
의 보보스 스타일이 51.5%를 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강북권의 캐주얼 스타일이 81%로 유행 스타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4)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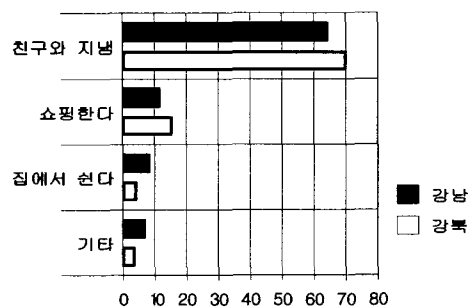
(1) 여가생활시 하는 일

여가 생활시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 강남권은 '영화보기'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맛있는 것 사먹기'가 24.6%, '쇼핑하기'가 21.8%이었다. 기타 5.4%에는 데이트, 동호회 활동, 여행, 게임, 운동 등이 있었고, 10대는 '쇼핑하기'가 20대는 '맛있는 것 사먹기'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북권은 '영화보기'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맛있는 것 사먹기'가 41%, '쇼핑하기'가 20%, 기타 9% 이었다.

<표 14> 여가생활의 유형



<표 15> 주말의 라이프 스타일



(2) 주말의 라이프 스타일

주말에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강남권은 64.3%

가 '친구들과 지냄(영화, 먹거리, 음주 등)'이라고 응답하였고, '쇼핑한다'가 11.7%, '집에서 쉰다'가 8.5%, '공부한다'가 5.0%, '일한다'가 3.4%, 기타가 7.1%를 나타냈다. 강북권은 '친구들과 지냄' 70.1%를 나타냈고, '쇼핑한다'가 15.6%, 집에서 쉰다. 4.3%, 기타가 3.9%, 'PC방에서 보내기'가 6.1%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트리트 현장의 유행 분석 및 선호도 조사 연구로 그 동안 패션 정보지 중심의 트렌드 예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의 유행 상황을 분석하여 패션 기획 시와 패션 현상에 대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남 지하철역 주변, 코엑스몰 일대의 강남권과 신촌지하철역 주변, 이화여대 입구의 강북권으로 나누었다. 이들 지역에 스트리트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신촬영과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일시는 강남권은 2002년 5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7시,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6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5시이며, 강북권은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7시, 2002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7시에 각각 실시되었다.

촬영한 사진은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스타일과 특별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특성, 의류소비현황, 착용의류의 패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의 특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남권 남자는 이지 캐주얼이 주종을 이루었고 트레이디셔널한 정장도 캐주얼에 영향을 많이 받은 스타일이었다. 여자는 이지캐주얼과 보보스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대략 60:40 이었다. 이에 비해 강북권의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보면 남자는 이지 캐주얼이 강세고 여자는 보보스 스타일과 이지 캐주얼이 약 30:7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2002 S/S 패션 트렌드와 스트리트 패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패션 스타일은 개개인이 개성 있는 연출을 하기보다는 유행을 추종하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남과 강북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었는데, 고급스타일인 보보스 스타일과 정장 스타일이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구매 패턴 차이, 통계학적인 인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구매 싸이클이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빠르므로 유행 전파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으로는 강남권의 연령이 22-25세로 19-21세가 가장 많은 강북권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3년 간 급격히 증가한 대형 패션매장의 강남권 집중 현상도 구매 싸이클의 패턴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션소비현황에서 한달 평균 의복 구입비는 강남권은 10-25만원이 40%, 강북권은 5-10만원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강남권이 강북권에 비해 의복 구입비 지출이 많다. 선호 브랜드는 강남·북 모두 폴로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2위부터 양상이 달라지는데 강남은 알마니, 바닐라B, 오브제와 같이 고급 수입브랜드와 디자인캐릭터가 뚜렷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강북은 지오다노와 같이 중저가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위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강남·북 모두 디자인이 좋다는 각각 56.9%,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구입장소는 강남·북 모두 백화점이 52.0%,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 구입장소에서는 지역적 차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뚜렷해 대학생과 직장인은 백화점을 중·고등학생은 동대문 밀레오레를 선호하고 있었다.

착용의류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유행 스타일 인가에 강남은 '그렇다'가 42.4%로 제일 높았으나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부정적인 대답에 57.0%를 나타냈고 강북은 '잘 모르겠다'에 62.3%를 나타내 유행 추종에는 관심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강남은 페미닌(보보스) 스타일에 51.5% 캐주얼에 46.0%를 나타내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서 영화보기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였던 중고생, 대학생, 직장인들을 겨냥한 패션 매장들이 강남역 등 영화관 주변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대 스트리트 패션 분석 및 패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패션 상품 기획 시에 보다 더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패션 현상에 대한 학문적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02년 5월말에서 6월초까지의 우리나라 강남권과 강북권의 스트리트 패션이 각자의 개성 있는 스타일의 연출이라기보다는 이지 캐주얼이나 보보스 스타일과 같이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는 스타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선정한 지역의 연령층이 청소년 집단이 대부분이라 더욱 캐주얼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의 패션 트렌드와도 같은 맥락으로 향후 패션시장은 캐주얼의 강세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시간에 걸친 조사 연구가 아니라는 점과 강북권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홍대 주변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차기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스트리트 사진 분석 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개발되어져 추후 후속 연구 시 활용되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1) Fashion insight(2001). '캐주얼 시장- 매출폭발, 월 100억대 브랜드 속출·사상 최대 매출'. *Fashion Insight*, Monday, December 3, p.2.
- 2) 인터패션플래닝(주)(2002). '소비자 조사 분석에 의한 2002년 국내 의류 시장 전망'. *비간행물*, 1(25), p.6.
- 3) Fashion insight(2002). '그래도 10대는 봉이다. 2002년 미국 주니어 마켓, 탄탄한 출발세'. *Fashion Insight*, Monday, January 21.
- 4) Ted Polhemus(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p.100.
- 5) 정현숙·양숙희(1999).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2, pp.137-162.

- 6) 이영재, 구인숙(1997).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3), pp.544-558
- 7) 김희남(1996). 현대 여성 하이 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정경희(1996).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이경수(1997).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인터패션플래닝(주)(2002). '소비자 조사 분석에 의한 2002년 국내 의류 시장 전망'. 비간행물, 1(25), p.7.
- 12) Chimura Noriyuki(저), 박기완(역)(1998). 패션코디네이트. 서울: 유신문화사, pp.62-97.
- 13) O.E. Schoeffler & William Gale(1973). *Esquire's Encyclopaedia of 20th Century Men's Fash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p.25.
- 14) *Ibid*, p.26.
- 15) Mick Farren(1985). *The Black Leather Jacket*. New York: Abbeville Press, p.35.
- 16) Mablen Jones(1987). *Getting It On*. New York: Abbeville Press, pp.51-52.
- 17) Michael Brake(1980).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 Sex and Drugs and Rock'n Ro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90.
- 18) Peter Yoke(1985). *Adorned in Dreams*. London: Virago Press, p.193.
- 19) Lynne Richard(1972). The Appearance of Youthful Subculture: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Devi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6, No.3, p.63.
- 20) Obalk Hector(1984). *Les Mouvement de Mode*. Robert Laffant, p.219.
- 21) Barnes Richard(1991). *Modes*. Neenah: Plexus, p.122.
- 22) 패션투데이(1997). *Modes Look*, 1월호, p.30.
- 23) Catherine McDermott(1987). *Street Style*. London: The Design Council, p.24.
- 24) Douglas A. Russel(1982).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153.
- 25) Dick Hebdige(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p.107, p.195.
- 26) Ted Polhemus(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pp.100-101
- 27) *Ibid*, p.134.
- 28) 정현숙, 양숙희(1999).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연구. 복식, 42, p.145.
- 29) <http://www.Fashionbiz.co.kr>